

가구특성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류 지 수 (서울여자대학교 박사과정)

1. 서론

시간은 금전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다. 그러나 시간이 금전과 다른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할당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간은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고 선택하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하루 24시간이 구성되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시간 사용을 탐색하는 것은 인간의 생활 패턴과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시간사용 패턴의 중요성을 제시해왔으며 개인의 안녕(well being)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차적인 제한은 시간의 유용성과 사용되는 시간으로 그 효과성을 결정하는 일련의 요인들이다.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들의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Asher and Ofir, 2002). 청소년상담원(199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즉,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비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음을 말한다(나영주 외, 2005).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일상의 생활에 배분하게 되는지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간들은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떻게 여성과 남성이 시간을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지, 다른 시간의 제약 아래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권의 다른 위치에 따라 시간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는 권한을 나타내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Daly and Beaton, 2005). UN의 젠더 평등에 대한 밀레니엄 프로젝트 팀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목표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United Nations Millennium Project 2004 재인용; Ritchie, 2004) 점에서 남녀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간사용의 검토를 통해 젠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시간 사용은 청소년의 미래의 모습과도 연관된다. 발달과정에서 마

땅히 청소년이 누려야할 시간사용의 영역에서 처한 환경으로 인해 달라지는 시간 활용의 구조로 불리를 겪게 된다면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며 사회적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시간활용 분석을 통해 개입과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시간사용 유형을 알아보고 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부에 따라 남녀 청소년의 시간사용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통계청이 2004년 9월에 실시한 '2004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전국의 1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약 32,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일지(time-diary)에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04 생활시간조사 응답자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청소년 4392명으로 남자청소년 2344명, 여자청소년 2048명의 평일(n=2492)과 주말(n=1900)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SPSS WIN/12.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농가여부, 부모 존재 여부를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시간사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돌봄노동(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의 시간사용량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각 시간사용유형에서 독립변수에 따른 평일 시간사용량의 차이와 주말 시간사용량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가구주라고 응답한 청소년과 가구주의 미혼형제, 자매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가구로, 가구주의 손자녀 및 그 배우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을 조손가구로 보고 부모가 없는 것(사망 또는 부재)으로 정의하였다. 가구주의 미혼자녀와 기혼자녀 및 그 배우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1)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분석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영역에서 남녀의 평일 시간사용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주말 시간사용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주말에 개인관리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Timmer 등(최남숙, 유소이, 2002: 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일과 학습 영역에서는 남녀 간에 시간사용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정관리에서는 평일과 주말 모두 성별에 따른 시간사용의 차이를 보였고, 남자와 여자 모두 평일보다 주말에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평일, 주말 모두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이 가정관리에 약 2배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평일과 주말 모두 남녀 청소년의 시간사용의 차이를 보였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제 및 여가활동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평일의 경우 약 15분, 주말의 경우 약 48분을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여가활동시간을 사용하였다.

2) 독립변수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 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성별과 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난 변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1) 평일 생활시간 사용

① 농가여부와 청소년의 생활시간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일과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비농가의 남자청소년보다 평균 57.41분, 비농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62.72분의 시간을 학습에 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의 경우, 농가와 비농가의 여자청소년 모두 농가와 비농가의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는 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농가의 여자청소년보다 약 50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었고, 비농가 여자청소년보다는 44.69분을 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 존재 여부와 청소년 생활시간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각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습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69.48분의 시간을 더 활용하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 비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학습에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보다 평균 4.6분 정도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는 여자청소년은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

보다 16.59분,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보다 11.98분,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보다 15.42분을 더 가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보살피기 영역에서는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는 부모가 있는 남자청소년과 부모가 없는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가 있는 여자청소년의 사용시간이 더 적었다.

(2) 주말 생활시간 사용

① 농가 여부와 청소년의 생활시간

개인유지,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네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개인유지를 위해 비농가 여자청소년이 비농가 남자 청소년보다 평균 18.16분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가정관리에서 농가 남자 청소년과 비농가의 남자 청소년 둘 다에 비해 농가와 비농가 모두 여자청소년이 더 많은 가정관리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비농가의 여자청소년보다 평균 78.28분을 더 활용하고 있었고, 비농가의 남자청소년이 비농가 여자청소년보다 46.86분 더 많은 여가시간을 사용하였다.

② 부모 존재 여부와 청소년 생활시간

개인유지, 학습,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 각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유지, 학습, 가정관리, 교제 및 여가활동 영역에서의 사후검증 결과, 개인유지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평균 17.31분을 더 활용하였다. 학습 영역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102.98분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있었다. 가정관리에서는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 14.72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16.38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이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27.29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28.94분을 더 많이 가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및 여가활동에서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과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 모두에 비해 부모가 있는 여자 청소년이 여가시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있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48.03분, 부모가 없는 남자 청소년보다 90.46분을 덜 활용하고 있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은 가구 특성(농가 여부, 부모 존재 여

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구 특성에 따라 살펴본 남녀 청소년의 생활시간 사용에서 여자 청소년 중에서도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이 시간사용에 있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 집단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부모가 없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평일 생활시간에서 부모가 있는 남녀 청소년보다 학습 시간 사용에서 더 적은 시간을 활용하였으며, 가정관리에 네 집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여가활동, 개인 관리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 할당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상대적으로 덜 사용하게 되고, 가정 환경적 제약, 젠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간 자원의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세대 없이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되는 조손가족의 경우, 가족해체가 급증하면서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 가족형태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조손가족은 가족 구성에서 이미 취약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지지체계와 자원이 필요하다(최해경, 2006).

시간 사용 양식은 젠더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제약만큼이나 미래의 계획과 진로, 특정 영역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을 반영한다(Shanahan and Flaherty, 2001).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 경험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의 달성은 개인의 능력 개발에 기여하는 개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달려있다(McGoldrick and Carter, 1999). 시간사용이라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경우, 발달단계의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렵게 되며 이는 청소년의 안녕과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봉주(2006)가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사회 집단의 형성을 위해 교내 기반의 또래 여가활동 집단 형성을 통해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Jacobs, Vernon, and Eccles, 2004). 또한 성분화적 시간 사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나영주, 황진숙, 이은희, 고선주, 박숙희. 2005. “청소년 생활시간의 내용과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 『대한가정학회지』 43(12): 15-28.
- 이봉주. 2006.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54-73 .
- 최남숙, 유소이. 2002. “청소년의 시간사용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가사노동, 여가, 과외수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1): 1-16.
- 최해경. 2006. “조손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실태와 조부모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

- 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9(2): 115-142.
- Asher B. A., and Anat Ofir. 2002. "Time for (more) time-use studies: studying the daily activities of children." *Childhood* 9(2) 225-248, Sage.
- Daly, Kerry J. and John Beaton. 2005. "Through the Lens of Time-How Families Live in and Through Time." pp. 241-262. in *Sourcebook of Family Theory & Research*, edited by Vern L. Bengtson et al. London: Sage.
- Jacobs, J. E., M. K. Vernon, and J. S. Eccles. 2004. "Relations between social self-perceptions, time use, and prosocial or problem behavio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1): 45-62, Sage.
- McGoldrick, M., and B. Carter. 1999. "Self in Context-The Individual life Cycle in Systemic Perspective." pp. 27-46. in *The Expanded Family Life Cycle,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Perspectives*. 3rd. edition, edited by B. Carter and M. McGoldrick. MA: Allyn & Bacon.
- Ritchie, A., Cynthia B. Lloyd, and Monica Grant. 2004.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mong adolescents in developing countries : Implications of rising school enrollment rates.", Population Council.
- Shanahan, M. J., and B. P., Flaherty. 2001. "Dynamic Patterns of Time Use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2): 385-401.